비말차단 마스크 '품귀' 당분간 불가피… "아직 생산 못해"

웰킵스 비말차단 마스크

정부 하루 100만개 공급 목표지만 웰킵스 · 파인텍 정도만 생산 시작

함께 제조 승인받은 건영크린텍 · 케이엠 다음 주께나 생산 돌입 예정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비말(침방울)차단 마스크의 인기가 치솟고 있지만 당분간 구하기 힘들 전망이다. 웰킵스와 파인텍 정도만 비말차단 마스크 생산을 시작했을 뿐 다른 업체들은 아직 생산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특히 정부는 이달말까지 하루 100만개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수요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KF마스크의 경우 하루 500만~600만개가 판매되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비말차단 마스크는 국내 1위 마스크 제조업체인 웰킵스가 하루 20만개씩 공급하고 있다. 파인텍도 에코페어와 드리미샵에 비말마스크를 하루 5만개 정도를 유통하고 있다.

반면 이달 초 웰킵스와 같이 정부로부터 비말마스크 제조 승인을 받은 건영크린텍과 케이엠은 다음주께나 생산을 시작해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건영크린텍 관계자는 "현재 온라인몰, 약국 등에서 계약하자는 문의가 많이 오는데 아직은 생산을 안하는 상태라 수요를 예측해서 계약하기 어렵다"며 "다음주 마스크 생산을 완료한 뒤 하루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면서 추후 생산량이나 납품처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웰킵스도 하루 20만장 외에는 추가 판매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 납품 중인 공적마스크가 지난주 출시한 비말차단 마스크와 같은 형태라 공급량을 더 늘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다. 다만 곧 출시할 평판형인 덴탈마스크 수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 추후 다른 업체들의 공급물량이 쏟아질 경우 다시 수량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어 섣불리 비말마스크 생산을 늘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하루 100만개 이상의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공급할 계획이다.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전날(8일) 마스크 수급상황 브리핑에서 "이번 주에도 비말차단 마스크 제조 허가를 받아서 생산하는 업체가 있다"며 "이달까지 하루 100만개 이상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100만개는 기존 공적마스크 수급 상황을 생각해보면 공급이 안정되기까지 턱없이 모자란 숫자다. 지난 4월부터 공적마스크 구매가 감소하면서 매주 4000만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여름철을 맞아 공적마스크 수요가 비말차단 마스크로 상당수 옮겨갈 것으로 전망돼 하루 100만개로는 수요를 충족하기 힘들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비말마스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들은 중소형이 많아 국민 모두가 여유있게 사용하기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며 "비말마스크는 기존 생산공정에서도 생산이 가능한만큼 정부가 마스크 생산업체에 생산을 독려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견고한' 세단 판매, 싼타페 컴백으로 뒤집힐까…세단 vs SUV 격돌

4세대 싼타페 부분변경 출시 임박…신형 플랫폼 적용 변화 커

그랜저 · 아반떼 · G80 세단 인기에 SUV 활기 되찾을지 관심

국내 대표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싼타페가 돌아온다. 내수 시장에서 세단의 위세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올 하반기 SUV와 세단 간 경쟁에 관심이 모인다.

더 뉴 싼타페는 2018년 2월 출시한 4세대 싼타페의 부분변경 모델이다. 신규 플랫폼 적용으로 완전변경에 가깝게 변신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 3일 공개된 내·외관 이미지를 살펴보면 외관은 기존 모델의 이미지를 이어받으면서 고급스러움과 무게감을 더했다.

전면부는 일체형의 그릴과 헤드램프가 적용됐다. 위아래로 나뉜 분리형 헤드램프는 수평의 넓은 그릴과 조화를 이루고 T자형 주간주행등도 강인한 인상을 구현한다.

실내는 고급감과 직관성을 높였다. 높아진 센터 콘솔은 문에서부터 크래시 패드까지 하나로 이어지며 운전자를 감싸는 형태로 설계됐다. 12.3인치 LCD 계기판과 10.25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적용해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신형 싼타페가 이 같은 변화를 단행하면서 올 들어 주춤했던 SUV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차종별 성적표는 엇갈린다. 세단은 신차 효과 덕에 판매량을 늘렸으나 SUV는 주춤했다.

현대차의 올해 세단 누적 판매량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12만1420대다. 이 기간 SUV 판매는 8만830대로 19.4% 감소했다. 특히 신차 출시를 앞둔 싼타페와 투싼의 판매량은 40% 넘게 줄었다.

그랜저는 5월 1만3416대가 팔리며 7개월 연속 내수 판매 1위를 지키고 있다. 아반떼도 지난달 9382대가 팔려 출시 한 달 만에 승용차 판매 2위로 올라섰다. G80 판매량은 7582대다. G80의 활약으로 제네시스 브랜드는 4월에 이어 2달 연속 1만대 판매를 돌파했다.

출시 첫해 월평균 1만대에 달하는 판매량을 기록했던 싼타페의 복귀에 따라 업계는 SUV의 시장 점유율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싼타페는 2018년 10만7202대가 팔렸다.

신형 싼타페에 이어 투싼 완전변경, 코나 부분변경, 제네시스의 두 번째 SUV G70, 기아차 스포티지 완전변경 등의 출시가 계획돼 있어 내수 시장 무게 중심이 SUV로 옮겨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저임금 '최소' 동결" vs "임금올려 경기진작을"

최저임금위, 2021년도 심의 오는 11일 시작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 "그러면 얼어붙은 소비는 어떻게 살린단 말인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짓는 줄다리기가 오는 11일 시작된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초유의 변수가 심의 전반을 지배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매년 최저임금 제도 전반에 관한 사안을 심의하는 고용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1일 오후 3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8590원이다.

이로써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는 심의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된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근로자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논의 시한인 오는 29일(고용부 장관의 심의 요청으로부터 90일 이내)까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도 노사 간극이 큰 관계로, 지난해처럼 논의 시한을 넘기는 '마라톤 심의' 가능성이 짙은 상황이다.

끝내 정해진 기한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고용부 장관이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8월5일' 이전까지로 시한은 미뤄지게 된다.

◇분위기 잡는 경영계… "중기 88% '동결·삭감' 요구"

경영계는 선제적인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1차회의 사흘 전인 전날(8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88.1%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올해와 같거나 낮아야 한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할 수 있는 기업 여력이 대거 축소됐단 주장이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이 동결 또는 감액된 적은 없었다. 경영계의 동결론이 현실화한다면 34년 만에 첫 제자리걸음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인상될 경우 절반 이상 기업이 '신규채용 축소'(44.0%) 또는 '감원'(14.8%)에 나설 것이라고 응답한 점을 근거로 동결론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경기는 급격히 악화됐고, 이에 따른 고용충격은 올 하반기에 심화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면, 현 정부 최대 역점인 고용 유지가 자칫 휘청일 것이라는 강력한 논리다.

◇방어하는 노동계… "정부, 내수 활성화한다지 않았나"

노동계도 적극 움직이고 있다. 이들 역시 만만찮은 논리로 무장한 뒤 심의에 임할 계획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1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논평에서 "근본적인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소득을 높여주는 정책이 우선시돼야 한다"며 대표적인 예시로 '최저임금 인상'을 들었다.

또 경총과 중기중앙회의 설문조사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저임금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최저임금 동결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임금격차와 불평등은 더욱 확대되고, 사회 양극화는 심화된다"고 맞받았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6.1% 인상)과 1999년(2.7%)에도 최저임금은 인상됐다는 논리 역시 덧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강한 상황이지만, 동결이냐 인상이냐를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며 올해도 제도 개선은 논의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올해에도 캐스팅보트는 공익위원이 잡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공익위원을 더욱 잘 설득할 '수치'를 제공하는 측이 승기를 잡게 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예컨대 지난해 심의 당시 공익위원들은 미중 분쟁과 일본 수출규제 영향으로 실물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3% 인상조차 견딜 수 없을 것이라는 논리에 손을 들어줬다.

그 결과로 공익위원들은 3%대 인상에 해당하는 8600원보다 10원 적은 경영계 안(2.9% 인상)을 택했다.

기보, 광주銀 · 광산구청과 맞손…"中企에 100억 우대보증"

기초지자체 · 지역銀과 협력해 도입한 최초의 민 · 관 상생협력 모델

기술보증기금은 지난 8일 광산구청, 광주은행과 '기술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초지자체, 지역은행과 협력해 도입한 최초의 민 · 관 상생협력 모델 사례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산구청은 기보에 5억원을 특별출연한다. 기보는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대상기업에 '보증비율 상향'(100%), '보증료 감면'(5년 동안 매년 0.2%p) 등 총1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광주은행은 기보가 보증한 기업에 '보증료 지원'(0.5%p), '대출금리 감면'(최소 0.7%p) 등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 기업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구체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술혁신선도형기업', '코로나19 피해기업'이다.

김영춘 기보 이사는 "이번 협약은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초지자체, 지역은행과 협력해 도입한 최초의 민 · 관 상생협력 모델"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최근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들을 위해 특화된 보증 상품을 마련해 지역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형택 기자

'백종원+갓뚜기 효과'

오뚜기 '다시마 2개' 오동통면 1차 '완판'

온 · 오프라인 할인 행사로 인지도 상승 공략

오뚜기 오동통면이 '백종원 효과'로 초반 흥행에 성공했다. 함영준 오뚜기 회장이 완도산 다시마 재고를 사들여 만든 '오동통면 맛남의 광장 한정판'은 온라인 판매 이틀 만에 초기 물량이 완판됐다.

9일 오뚜기에 따르면 전남 완도산 다시마 2개를 넣은 오동통면은 지난 4일 온라인몰 판매 이틀 만에 준비된 사전 물량 4만개가 완판됐다.

이번 한정판 제품은 지난 4일 SBS 예능 프로그램 '맛남의 광장' 예고편에서 공개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함 회장 합의로 성사됐다.

함 회장이 언급한 다시마가 들어간 제품은 오동통면이다. 오뚜기는 오동통면으로 전자레인지 조리가 가능한 용기면을 업계 최초로 선보이며 혁신을 꾀하기도 했다. 하지만 38년 스테디셀러 너구리에 가려 빛을 보지 못했다.

오뚜기 관계자는 "한정판 제품 인기에 따라 다시마 2개를 넣은 제품을 정식 출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오뚜기는 한정판 출시를 기념해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했다. 자사 온라인몰에선 한정판 오동통면을

기존보다 1000원 할인한 가격에 판매한다. 개당 가격은 495원으로 진라면보다 저렴하다.